

삼국유사에 나타난 관세음신앙의 상담적 의의

이 진 현
(부산대학교 박사과정)

〈요 약〉

본 연구는 『삼국유사(三國遺事)』 속 관세음신앙 일화에 담긴 사람들의 고통과 관세음을 통한 구원의 과정을 살펴보고, 그에 담긴 상담적 의의가 무엇인지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일연(一然)의 『삼국유사』 관세음 일화 12개를 선정, 문헌고찰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얻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12편의 『삼국유사』 관세음 일화에는 그 당시 사람들이 겪은 삶의 어려움들과 그 해결과정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 이는 상담과 심리치료 과정의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었다. 둘째, 『삼국유사』 속 관세음은 지금-여기의 고난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문제해결의 과정을 조력하는 존재 즉 오늘날 상담자로서의 존재로 등장하였다고 볼 수 있었다. 셋째, 『삼국유사』 속 관세음의 구원 과정에는 인간 성장을 위한 환경 구성의 아이디어를 담고 있었으며, 이는 곧 상담과 심리치료가 지향하는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었다. 상담과 심리치료에서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상호작용하고 있는 시대와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요소가 개인적 삶과 함께 고려될 때, 문화적 요소와 한국적 상담의 방향성은 다시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삼국유사, 관세음, 상담사상, 상담철학, 내러티브

I. 서론

상담과 심리치료는 서양에서 발달한 심리학의 이론들을 근거로 발전되어 왔다고 볼 수 있으며, 심리학은 그리스 고전 철학에서부터 그 학문적 기원을 찾고 있다(Collin et al., 2012/2013: 10, 16). 신체와 정신이 분리되어 있다는 데카르트의 주장 이후, 여러 학자들의 연구들을 거쳐 1870년대 경험적 심리학이 등장했고, 철학·생리학 그리고 물리학에서 더 구별되며 나타난 심리학의 독자적 발전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심리학의 학문적 틀로 이어졌다고 이해할 수 있다(Brennan, 1982/1996: 6-7; Collin et al., 2012/2013: 16; Jung, 1984/2006: 15-17).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지에 관한 심리학적 관심은 서양의 사고방식과 전통·문화가 근간

이 되어 발달되어왔다고 보아야 하며, 그것은 서양의 관점에 한정되어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다.¹⁾ 그렇기에 심리학에서 발전된 상담과 심리치료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 인간과 인간 마음을 이해하는 관점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인간과 인간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원형적 시도로서 살펴볼 수 있는 인류 문명적 기원은 어디서부터 찾아야할까? 인간 삶의 역사와 발달 연대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 시도의 시기는 모든 문화와 사회가 움트기 시작한 역사의 시작점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다. 고대 전통사회의 인간들은 그들의 사고, 정서, 영혼, 정신 그리고 뇌를 포함한 세계의 본질을 그들만의 사회적 전통과 종교 등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여러 시도들을 해왔기 때문이다(Jung, 1984/2006: 277, Wango, 2017: 31). 이는 고대 전통사회 속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 즉 내적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들로, 인간이 마음을 알고자 하는 행위의 원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고대 전통사회의 전통과 종교 행위 등을 인간이 경험하는 정신작용을 알기 위한 과정 즉 삶의 과정으로 보았을 때, 이는 어떻게 하면 인간의 고통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한다.

오늘날 국내 상담과 심리치료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발전된 인간 고통 이해와 해결에 관한 서구 문명의 관점을 담은 심리학 그리고 상담 및 심리치료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인간의 고통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 또한 지속되고 있다(김창대 외, 2008: 962-963; 안형관, 전영숙, 1999: 2; 주은선, 박영주, 2015: 454). 이 인식과 관심은 한국적 상담성과에 대한 연구들로, 다음의 제언들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상담자 교육과 훈련과정에서 서양의 상담이론과 연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 점, 서구 이론을 중심으로 한 상담 연구가 지속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삼아 한국 문화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국내 상담과 심리치료의 한계를 지적한 것이다(김창대 외, 2008: 962; 주은선, 박영주, 2015: 473-474). 이 한계는 내담자의 내적세계에 영향을 주는 정서적·문화적·개인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짐을 반증하는 것으로, 한국 문화 속에 살고 있는 내담자들만의 독특한 생활세계 즉 삶의 과정을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상담자에게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박수영, 최한나, 2013: 2981, 임은미 외, 2020: 16).

1) Brennan(1982/1996: 6-7)은 그의 저서 『History and System of Psychology』에서 심리학의 역사적 기초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심리학의 공부는 서구의 지적 사상의 광범하고도 풍요한 맥락 내에 두어져야만 된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우리는 은연중에 심리학이 서구문명의 전통에 통합된 하나의 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 서구의 지적 사상에 대한 심리학의 의존은 인식되어져야만 되며, 이러한 관계는 이 책의 초점을 서구의 전통들에 한정시키는 것을 정당화시켜 준다.”

상담에서 한국 문화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는 것은 주로 부모-자녀 중심 가족주의, 수직적인 집단문화, 남녀 차별과 학력위주로 인한 불평등, 인정주의, 도리와 윤리에 근거한 인간 관계의 특징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김창대 외, 2008: 981; 주은선, 박영주, 2015: 473). 이는 주로 조선시대 이후 일제 강점기를 거쳐 형성된 시대적 특수성을 근거로 삼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들은 주로 유교적 문화의 문제로 환원되는 것을 알 수 있다(권기성, 2012: 245).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한국인과 한국인의 삶의 과정을 특정한 시대적 가치에 한정된 경험으로만 보는 단편적 이해에 그치고 있다고 보인다. 한국인들이 삶의 과정에서 겪고 있는 심리적 문제들에 대한 이해와 접근 방향을 단순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문화권의 범위에 대한 시각의 확장이 필요하겠다. 오늘날 개념화된 삶의 양식 또는 틀을 벗어나 다양한 삶이 공존하고 있는 고대 전통사회와 그 속에서 교류되었던 다양한 문명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여기에서 문명은 오늘날 사회적 전통이나 종교의 의미가 아닌, 고대 전통사회를 살아간 인간의 삶 또는 삶의 양식을 담은 체계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은 우리나라 문명교류의 장에 중심인 동아시아 문화권과 그 속에 자리 잡은 동양 전통 사상인 유·불·도를 통하여 고대 전통사회 사람들의 내적 세계를 살펴볼 수 있게 하고, 그 시대가 반영하고 있는 일상 즉 삶과 삶의 양식까지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이처럼 삶 또는 삶의 양식으로서 동양 전통 사상을 살펴본다는 것은 한국인과 한국인들의 삶에 과정에 대한 이해의 확장을 이끌고, 이를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이 기회는 오늘날 현대인이 겪고 있는 심리적 문제들과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들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실마리를 발견하는 기회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겠다.²⁾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보통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삶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활동 즉 구원을 목적으로 쓰였으면서도, 분화되고 분별되며 형식화된 사고 방식이 지배적이지 않았던 시대인 고대에 집필된 역사적 사료들 중 일연(一然)의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일연이 『삼국유사』를 집필하게 된 동기의 이해에서부터 시작된다. 오랜 대몽항쟁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민중들에게 신앙적 가치를 통하여 당

2) 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에는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적·환경적 영향들만을 뜻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인간에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어떤 것이 특정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은 형식화되고 구조화된 형태의 언어와 교육에 의하여 유도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Jung, 1984/2006: 158). 따라서 인류의 공통성만큼이나 인간에게는 쉽게 자각할 수 없으면서도 금방 알아차릴 수밖에 없는 자신이 속한 세계 속의 오랜 문명과 역사, 문화적 전통, 삶의 양식과 경험 등에 따라 형성된 독특성이 존재한다는 것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한다(안형관, 전영숙, 1999: 2).

면한 힘든 상황을 이겨내도록 함으로써 지금-여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의미를 일연이 『삼국유사』에 담았다고 보기 때문이다(채상식, 2006: 6, 2017: 26-27). 이 때 신앙적 가치는 사후세계나 미래와는 관련 없는 현실의 고통을 지금-여기에서 들어준다는 관세음 신앙의 현세구원적 가치로, 이 사상적 배경이 『삼국유사』에 담겨있다고 이해할 수 있게 한다(안경식, 1995: 97). 또한 이러한 이해는 일연이 삶에서 경험하고 관찰한 현상들을 통한 일연만의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게 한다.³⁾ 그 문제의식은 현실적 고통에 빠진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로 인한 문제들의 해결에 조력하는 오늘날 상담과 심리치료의 입장과 연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삼국유사』 중에서도 관세음신앙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살펴보는 것은 오늘날 상담 및 심리치료의 시사점 발견에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의 우리는 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것처럼 고대 전통사회 사람들의 삶을 직접 들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들이 살아온 삶을 기록해둔 역사적인 사료는 간접적으로나마 그들이 경험한 생활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생활세계는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을 담고 있고, 이는 곧 그들을 둘러싼 환경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얻게 된 앎이 담겨 있다고 보아야 한다(안경식, 2019: 502).⁴⁾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고대 동아시아 문명을 담고 있는 신라시대 중에서도 『삼국유사』에 주목한다. 그리고 『삼국유사』 속 관세음신앙의 일화들을 통하여 당대 사람들이 경험한 삶의 고통과 관세음을 통한 구원의 과정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상담과 심리

3) 여기에는 스스로가 직접 경험하는 것만이 자신의 심리적 문제해결과 타인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이끌 수 있다는 프로이트의 입장을 바탕으로 한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이무석(2008: 62)은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프로이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프로이트는 철저한 경험주의자였다. 자신이 자기분석을 통해서 경험한 것이나 환자에게서 관찰한 것을 정리하여 이론으로 발표했다. 스스로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은 아무리 그럴 듯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프로이트가 말하는 경험이라는 것에는 프로이트 스스로에게 시도한 자기분석의 과정을 뜻한다. 그에게 자기분석은 자신의 심리적 문제해결과 내담자의 이해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이장호, 정남운, 조성호, 2018: 19 재인용). 그렇기에 상담과 심리치료 과정에서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상담자의 심리적 문제 해결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내담자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4) 안경식(2019: 502-503)은 『신라인의 교육, 그 문명사적 조망』에서 교육을 문명사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교육은 문명의 핵심”이라고 전하고 있다. 특히 “교육학의 관점에서 문명의 본질을 말하자면 ‘지’다. 사상, 종교, 철학, 예술 등 문명의 모든 것이 ‘지’ 아님이 없다. 이 ‘지’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이 미디어라고 하지만 이것마저도 ‘지’의 한 형태다. … 신라인의 ‘지’는 대부분 삶의 현장과 밀착되어 있다. 앎과 삶이 분리되는 순간, 앎은 장식이 된다. … 지적인 교육이든, 정의적 예술교육이든, 심지어 신체단련과 유오(遊娛) 활동마저 생활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고 논하고 있다.

치료에 시사점을 논하고자 한다.

II. 『삼국유사』의 관세음 일화에 담긴 삶의 고통과 구원

관세음은 현실 즉 지금-여기의 고난과 고통을 구원하는 존재라고 한다(안경식, 2019: 331).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妙法蓮華經 觀世音菩薩普門品, 이하 법화경)』에서는 현실의 고통 속에서 온 마음, 한 마음으로 그를 부르면 그 음성을 관(觀)하여 소원을 들어주는 또는 구원하는 대자대비(大慈大悲)의 존재로 관세음이 묘사되고 있기 때문이다(조수동, 2001: 329-330).⁵⁾ 그렇다면 그 경전 속의 관세음이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게 등장할까? 『삼국유사』에서 관세음신앙과 관련된 일화를 살펴보면 <기이(紀異)>의 《문무왕 법민(文武王 法敏)》 1편, <탑상(塔像)>의 《삼소관음과 중생사(三所觀音 衆生寺)》, 《백률사(栢栗寺)》, 《민장사(敏藏寺)》, 《남백월의 두 성인 노힐부득과 달달박박(南白月 二聖 努脌夫得 怛怛朴朴)》, 《분황사의 천수대비가 눈먼 아이의 눈을 뜨게 하다(芬皇寺 千手大悲 盲兒得眼)》, 《낙산의 두 선인 관음과 정취 그리고 조신(洛山 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 《오대산의 5만 진신(臺山 五萬眞身)》, 《오대산 월정사의 다섯 성중(臺山 月精寺 五類聖衆)》 8편, <의해(義解)>의 《자장이 계율을 정하다(慈藏定律)》 1편, <감통(感通)>의 《광덕과 엄장(廣德嚴莊)》, 《경흥이 성인을 만나다(憬興遇聖)》 2편 등 12편 정도로 볼 수 있다(안경식, 1995: 86).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무사·무탈의 기원 - 《문무왕 법민》, 《백률사》, 《민장사》, 《삼소관음 중생사》

삶에는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가득하다.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한 불안이나 공포, 두려움 등을 느낀다. 이 느낌들은 종종 어떤 위험에 빠지게 한다거나 생명에 위태로움을 느끼게 하는 상황들을 마주할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만들어 그 덩치를 부풀리기도 한다. 그리고 그 상상은 실제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기도 한다. 그 일의 당사자는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나의 가까운 이가 될 수도 있다. 그러한 일들은 짧은 순간에 끝날 수도 있지만 긴 시간 동안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누군가에게는 현실 속의 고통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과거나 미래에 있는 일로 지금의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가십이기도 하다. 고통의 대상, 상황, 시점 등을 벗어나더라도 고통을 당하는 이에게는 지금-여기만의

5) 『妙法蓮華經 觀世音菩薩普門品』 “佛告無盡意菩薩，善男子，若有無量百千萬億衆生，受諸苦惱，聞是觀世音菩薩，一心稱名，觀世音菩薩，即時，觀其音聲，皆得解脫。”

고통이 존재할 뿐이다. 이렇게 본다면 고통은 시공의 흐름을 벗어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⁶⁾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위협하는 고통이 어서 끝나기를 바란다. 또한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 싶고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스스로가 또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든 늘 무사하고 무탈하기를 바란다.

『삼국유사』에도 그러한 이야기들이 담겨있다. 《문무왕 법민》의 김인문, 《백률사》의 부레랑과 인상, 《민장사》의 보개 아들 장춘 그리고 《삼소관음 중생사》의 화공은 이야기 속에서 큰 위험을 마주하였다. 김인문은 전쟁 중에 적에게 잡히고, 부레랑과 인상은 놀이를 갔다가 말갈족에게 잡혀가고, 바다에 일을 나간 장춘은 돌아오지 않으며, 화공은 천자가 요청한 그림의 작은 실수 하나로 감옥에 갇히고 형벌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 말 그대로 이 이야기들의 주인공들은 생명의 위협에 놓인 것이다. 이대로라면 이들은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오늘날이라면 이 상황은 각종 인터넷 매체, 뉴스 기사나 보도 등 통해 생생하게 전달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지인들은 순식간에 어떤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할 것이다. ‘제발’이라는 간절함과 함께.

두려움 속에 담긴 이 간절함은 위협에 처한 이야기 속 주인공들이 무사하고 무탈하기를 바라는 그들 자신과 가까운 이들의 기원이기도 하다. 나아가 그 기원은 지역사회, 국가 또는 전세계처럼 우리가 예상했던 범위를 벗어나기도 한다. 나와 같은 고통, 내가 또는 미래 세대가 겪을지도 모르는 고통을 함께 공유한다는 것은 시공간을 벗어난 고통 그 자체에 대한 공감인 것이다. 그 공감적 태도가 이야기 속에서는 한 마음으로 하는 바람 즉 기원으로 이어져 나라의 사람들이 함께 관음도량을 짓는 것, 가족과 부모가 대비상과 관음보살 앞에서 기도를 드리는 것 그리고 온 마음으로 집중하고 스스로를 믿으며 그 일에 몰두함으로써 꿈에서 만난 11면 관음상을 그림으로 그려내는 등의 실천적 행위로 나타난다. 그들의 마음을 담은 형태는 다양하지만 그 과정에는 그들의 무사와 무탈을 기원하는 한 마음, 온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야기 속에서 관세음은 그들의 진심에 귀를 기울인다. 위협에 처한 이들을 큰 바다에 떠내려가지 않게 하고, 적과 위협을 가하는 것들에게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그 기도에 응답하고 그들을 구원하게 되는 것이다.⁷⁾

6) 이무석(2003: 99-103, 재인용)은 심리적 갈등과 병리를 야기하는 비의식(무의식)의 기능 특성 여섯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에 구애받지 않음(timelessness). 둘째, 현실 무시(disregard of reality). 셋째, 심리적 현실(psychic reality). 넷째, 모순이 없음(absence of contradiction). 다섯째, 부정이나 반대의 개념이 없음(absence of negation). 여섯째, 실체로서의 말(words as things). 이 특성들은 인간의 본능에너지와 욕구충동을 담고 있는 1차 과정(primary process)이 시간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대로 오갈 수 있는 비의식(무의식)이라는 환경에서 나타나는 결과로, 우리가 겪고 있는 심리적 문제들과 병리적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2. 질병 치유의 기원 - 《분황사의 천수대비가 눈먼 아이의 눈을 뜨게 하다》, 《경흥이 성인을 만나다》

삶에서는 생명에 큰 위태로움까지는 아니더라도 갑작스러운 질병을 마주하기도 한다. 질병과의 만남은 평상시 익숙했던 일상을 보내지 못하게도 하고, 기운을 가라앉게 만들어 그 어떤 일에도 에너지를 발휘할 수 없게도 한다. 그러한 모습들을 불러일으키는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신체적인 문제일 때도 있고 심리적인 문제일 때도 있다. 질병의 원인을 막론하고 오늘날이라면 당장 병원에 가보라고 하겠지만, 『삼국유사』 속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가깝게 느껴졌을까? 물론 그 당시에도 다양한 치료방법들과 그들을 고치는 의사와 같은 사람이 있었겠지만, 이것은 매우 제한된 사람들만이 접근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대다수의 민중들에게는 당장의 끼니를 챙기는 것만으로도 빠듯했을 것이기에, 약을 구입하거나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마음을 먹어야 하는 일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기에 그들에게는 자녀 또는 나의 질병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가장 가까운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분황사의 천수대비가 눈먼 아이의 눈을 뜨게 하다》에서 희명의 자녀와 《경흥이 성인을 만나다》에서 경흥법사는 병을 앓았다. 희명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희명의 자녀는 갑자기 눈이 멀었다. 5살 아이가 앞을 볼 수 없다는 것, 장애를 가지고 아이가 살아가야 할 남은 세월을 생각하면 부모에게는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일이다. 그렇기에 부모에게 자녀의 병은 고통 그 이상인 것만 같다. 차라리 저 병이 나에게 왔으면 하는 말처럼 자녀의 병으로 절망에 처한 부모의 심정을 아이에게 부르게 한 노래에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⁸⁾ 그리고 경흥법사는 병으로 한 달이나 앓았다. 그래도 희명과 그 자녀에 비하면 현실적인 상황이 나아 보인다. 누군가가 경흥법사의 병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처방을 시도하고 있

7) 『妙法蓮華經 觀世音菩薩普門品』“若爲大水所漂 稱其名號 卽得淺處, 若有百千萬億衆生 爲求 金銀琉璃 磲渠瑪瑙 珊瑚琥珀 眞珠等寶, 入於大海 假使黑風 吹其船舫 飄墮羅刹鬼國, 其中 若有乃至人稱觀世音菩薩名者, 是諸人等 皆得解脫 羅刹之難. 以是因緣 名觀世音. 若復有人 臨當被害 稱觀世音菩薩名者 彼所執刀杖 尋段段壞 而得解脫. 若三千大千國土 滿中夜叉羅刹 欲來惱人, 聞其稱觀世音菩薩名者, 是諸惡鬼 尙不能以惡眼 視之, 況復加害. 設復有人 若有罪 若無罪 桎械枷鎖 檢繫其身, 稱觀世音菩薩名者 皆悉斷壞 卽得解脫.”

8) 『三國遺事』 卷第三 「塔像」 第四, <芬皇寺 千手大悲 盲兒得眼>, “膝脢古召旆 二尸掌音毛乎支內良 千手觀音叱前良中 祈以支白屋尸置內乎多 千隱手叱千隱目旆 一等下叱放一等旆除惡支 二千萬隱吾羅 一等沙隱賜以古只內乎叱等邪阿邪也 吾良遺知支賜尸等焉 放冬矣用屋尸慈悲也根古”, “무릎을 곧추며 두 손바닥 모아 천수관을 앞에 비음을 두나이다 천손 천눈을 하나를 놓아 하나를 더 읊길 둘 없는 내라 하나만으로 그윽히 고칠 것이다 아아 나에게 끼쳐주시면 놓되 쓸 자비여 얼마나 큰고(이재호, 2008: 113-114)”

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각자의 위치마다 고통은 있는 법이고 병 앞에서는 그 누구도 다르지 않다. 더구나 나라의 큰 중책을 맡은 국사가 한 달이나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고 국가적인 고난에 해당할 수도 있다. 나라의 위태로움은 고스란히 민중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질병은 지위를 막론하고 빨리 치유되기를 바라게 되는 것 같다.

이야기 속에서 그들은 질병의 치유를 바랐다. 그 바람은 노래이기도 했고, 경전 속의 이야기를 근거로 한 열한 가지 탈을 쓴 춤이기도 했다. 이것을 일종의 의식(ritual)으로 보았을 때 노래와 춤은 질병의 치유를 바란 행위로 볼 수 있다.⁹⁾ 이러한 관점은 기원의 행위를, 관세음에게 이야기 속 인물들이 처한 상황과 고통 그리고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함을 담은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의식의 전체 과정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이 되는 것이다. 한편, 고통을 이야기 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야기의 과정은 노래와 춤처럼 그 고통으로 인하여 감각적으로 느끼고 체험된 것들을 담아 전달하는 과정이고, 그것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도 쉽게 감각적 체험으로 함께 공유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¹⁰⁾ 이렇게 보았을 때 고통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고통의 느낌을 동반하기에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고통이지만, 결국은 스스로가 넘어서야만 하는 변화의 시작이라 하겠다.

고통에 대한 이야기 이후, 주인공들은 어떤 변화를 마주했을까? 희명과 자녀의 노래에 응답한 천수대비는 희명의 자녀에게 떨어진 눈을 뜨게 하였다.¹¹⁾ 여승으로 나타난 11면 관음상은 경흥법사의 병이 근심에서 시작된 것임을 알게 하고 우스운 춤으로 한 달 동안이나 앓은 병을 깨끗하게 낫게 하였다.¹²⁾ 이야기 속에서 천수대비의 수많은 손과 눈은 신체적 병을 치유하고, 11면 관음상의 다양한 얼굴은 심리적 병을 치유했던 것이다. 몸 또는 마음

9) 오늘날 상담장면에서는 언어(verbal)뿐만 아니라 각종 대상물, 춤과 행위, 음악, 미술, 사진, 영상, 책 등 예술이라는 매체를 활용한 상담과 심리치료가 적용되고 있다. 이는 우리의 마음에 담긴 '느낌을 감각적으로 와 닿게 하는 예술적 기능을 활용한 것으로, 그 느낌에 담긴 주관적 의미를 알아차리게 함으로써 내적 소통과 치유, 그리고 삶의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김선현, 2015: 4-5).

10) 이동식(2016: 154, 158-159)은 심리적 고통과 정신적 갈등에는 핵심감정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는 인간의 동기 즉 서구의 사고방식에서 말하는 핵심역동의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인간의 주관적 느낌을 뜻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핵심감정은 느낌이기 때문에 개념적 사고(conceptual thinking)로 이해할 수 없으며, 오직 느낌이 오는 공감(共感)으로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11) 『妙法蓮華經 觀世音菩薩普門品』 “衆生被困厄 無量苦逼身, 觀音妙智力 能救世間苦.”

12) 『妙法蓮華經 觀世音菩薩普門品』 “若有衆生 多於淫欲 常念恭敬觀世音菩薩 便得離欲, 若多瞋恚 常念恭敬觀世音菩薩 便得離瞋, 若多愚癡 常念恭敬觀世音菩薩 便得離癡.”

과 같이 이야기 속 인물들에게 병이 나타난 형태는 달랐지만, 관세음은 감각적 체험으로 병에 공감했고 그것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관세음 자체로 인물들의 치유에 도움이 되었다고도 보인다. 이는 관세음의 존재 자체가 치유를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그 역할의 수행은 이야기 속 인물들이 전하는 고통을 바라보는 관세음으로 드러나듯이, 내적 결핍이나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공감하는 모습인 것이다. 그렇기에 관세음이 보인 질병 치유의 구원은 치유를 위한 도구로서 존재 자체가 있는 그대로 고통을 마주하고 공감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게 된다.¹³⁾

3. 자녀의 기원 - 《자장이 계율을 정하다》, 《삼소관음과 중생사》

목숨이 위태롭거나 질병에 처해 있는 것만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아닐 것이다. 삶에서 고통은 사람을 통해서 겪게 되기도 한다. 우리가 잘 아는 친구, 직장동료뿐만 아니라 얼굴을 전혀 알 수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까지 우리는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물며 그 고통의 대상이 가족이라면 어떨까? 이렇게 말한다면 그 고통이 가정 내 학대나 폭력과 같은 모습을 상상하겠지만,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이들을 만나지 못하는 현실 또한 고통일 수도 있다. 가족을 꾸려 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이다. 마음이 잘 통하고 삶의 가치관을 공유하며 같은 비전을 그려가는 삶은 어떤 형태의 가족이라도 바라는 바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자녀를 낳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현실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다.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대부분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형태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바람이 간절할수록 그 현실은 더욱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 그렇기에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닮은 이가 우리의 삶에서 함께하고, 그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간절할 수밖에 없다.

《자장이 계율을 정하다》의 무림은 가문을 이을 자녀 낳기를 바랐고, 《삼소관음과 중생사》의 최은함은 기도를 통해 낳은 자녀가 나라의 전쟁으로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그의 안

13) Kottler(1999/2010: 14-15)는 상담자는 상담자가 되기 위하여 알게 된 것들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담자들은 그것을 내담자의 상담과 치료에만 활용할 뿐 자기 삶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 문제는 상담자가 개인의 삶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상담자는 자신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이를 해결해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담자들과의 상담과 심리치료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지적에는 상담장면에서 상담자의 역전에 대한 문제와 내담자의 치료적 영향력 등에 대한 문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상담자 개인분석은 그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하겠다.

전과 양육까지도 바랐다. 자녀의 소중함은 어린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기에 그러한 아이들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양육의 역할을 담당하는 모든 이들의 간절함인 것이다. 그 간절함은 귀하게 얻은 자녀를 엄격한 종교적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다는 결심, 지금 당장에 자녀의 안전과 보호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녀가 커갈 세상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전쟁에도 흔쾌히 뛰어드는 용기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 마음에 관세음은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이야기의 결과에서도 관세음의 응답은 자녀들을 불교계에서 높은 위상을 지닌 자장으로, 한 나라의 재상 역할을 수행한 최승로로 성장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¹⁴⁾ 그들은 올바르게 총명하며 삶의 지혜와 큰 덕을 지닌 인간으로 성장한 것이다. 또한 관세음의 보살핌에 과정은 자녀를 얻는데서만 그치지 않는 것 같다. 아이를 잘 먹이고 씻기며 양육하는데 힘쓰는 관세음의 모습들은 어떤 형태로든 아이를 낳고 기른다는 것에는 생명의 탄생으로만 끝나지 않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세상에 태어난 아이라면 어느 하나 귀하지 않은 아이가 없다는 말에는 그 아이가 지닌 성장의 가능성을 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관세음의 보살핌처럼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의 구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러한 과정들이 본 이야기들에서 드러난 관세음의 구원이라 할 수 있겠다.¹⁵⁾

14) 『妙法蓮華經 觀世音菩薩普門品』 “若有如人 設欲 求男 禮拜供養觀世音菩薩, 便生福德智慧之男, 設欲求女 便生端正 有相之女, 宿植德本 衆人愛敬. 無盡意, 觀世音菩薩 有如是力.”

15) Rogers(1961/2009: 14)는 『진정한 사람되기(On Becoming a person—A Therapist’s View of Psychotherapy)』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껏 말한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깊은 깨달음이 하나 있다. … 나의 경험상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치료 과정에서 사람들과 깊이 접촉하면서, 심지어 고통이 가장 심하고, 행동이 가장 반사회적이고, 감정 상태가 가장 비정상적일지라도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발견했다. 내가 민감하게 그들이 표현하는 감정을 이해하고, 그들을 올바른 사람으로서 수용해줄 때, 그들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이 움직이는 방향을 내가 믿기에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말은 ‘긍정적’, ‘건설적’, ‘자아실현을 위해 움직이는’, ‘성숙을 향해 성장하는’, ‘사회화를 향해 성장하는’ 등의 단어다. 사람이 온전히 이해받고 수용되면 될수록, 더욱 더 그는 인생을 대하던 자기의 거짓된 태도를 버리게 되고, 점점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 가장 깊은 수준에 존재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강력한 경향성을 발견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의 가능성을 발견한다는 것에는 그 가능성이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의 구성이 필수적이다. 그 환경은 물리적 환경(surrounding)만이 아니라 인간과 사회 그리고 국가 등을 포함한 환경(environment)이어야 한다. 이는 상담과 심리치료가 그 환경을 구성하는 일이어야 함을 뜻하며, 그 환경 자체가 상담자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환경의 과정은 ‘그들의 진리, 그들이 움직이는 방향을 믿는 것’으로, 상담자로 대표되는 환경과 내담자의 상호작용은 내담자의 생활 세계 속에서 새로운 환경으로 재구성될 수 있도록 확장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4. 수행 지속 공간의 기원 - 《삼소관음과 중생사》, 《낙산의 두 성인 관음과 정취, 그리고 조신》, 《오대산의 5만 진신》, 《오대산 월정사의 다섯 성중》

인간 삶의 과정은 생존과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부터의 안전을 보장받고 양육 환경 속에서 사랑과 보살핌을 얻고 나면, 스스로의 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것 같다(권석만, 2014: 133-134).¹⁶⁾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하며, 그 가치의 지향이 결과적으로 삶에서 어떤 실천으로 드러나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꾸준한 자기 노력과 그 노력을 지속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알기 위하여 배움의 공간을 찾아다니듯이 무엇을 알아갈 수 있는 공간 말이다.

《삼소관음과 중생사》의 주지 성태와 점승, 《낙산의 두 성인 관음과 정취, 그리고 조신》의 의상법사, 《오대산의 5만 진신》의 보천과 효명, 《오대산 월정사의 다섯 성중》의 신희거사는 관세음을 통하여 그러한 공간을 발견한 자들이다. 주지 성태는 성실히 해왔던 수행 과정에서 더 이상 물질적으로 시주할 것이 없어서, 점승은 한 마음으로 지속해왔던 수행에서 글을 모른다는 남들의 비난 때문에 수행을 멈추고 그 공간을 유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가 관세음의 도움으로 수행과 그 공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의상법사는 온 마음을 담은 자기 수행을 통하여 바로 그곳이 관세음의 진신이 머무른 곳을 깨닫고 수행의 공간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기도 하였다. 보천과 효명은 아무도 모르는 산 속에서 각자 수행하며 관음진신을 마주하기도 하였고, 신희거사는 관음보살의 인도로 수행을 위한 공간을 발견하기도 하였다.¹⁷⁾

이야기 주인공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수행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볼 수 있다. 이미 삶에서 자기 성장을 위한 노력 즉 자기 탐구 과정이 생활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인물들은 이제는 생활이 되어버린 그 과정이 다양한 이유로 지속되지 못할 때 또

16) 인간에게 행복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에서 권석만(2014: 133-134, 재인용)은 인간의 행복을 심리적 과정이라고 이해하였을 때, 인간에게는 다양한 욕망이 있으며 이를 충분히 충족시키면 행복감을 느낀다는 주장을 담고 있는 욕망충족이론(desire fulfillment theory)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그 중에서 Maslow의 위계적 욕구 발달 이론을 통하여 인간은 생존과 안전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집단에서 사랑과 보호의 욕구까지 충족되면, 자연스럽게 자기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증명하기 위하여 자기 발전을 이끌고 내적 잠재능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노력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17) 『妙法蓮華經 觀世音菩薩普門品』 “若有衆生 恭敬禮拜觀世音菩薩 福不唐損。是故衆生 皆應受持觀世音菩薩名號。無盡意, 若有人受持六十二億恒河沙 菩薩名字, 復盡形供養飲食衣服 臥具醫藥, 於汝意云何。是善男子善女人 功德多不。無盡意言, 甚多。世尊。佛拜供養, 是二人福 正等無異, 於百千萬億劫 不可窮盡。”

는 지나친 습관화로 타성에 젖게 됐을 때 등의 상황에서 삶의 전환을 일으킬 계기가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전환의 계기는 자기 탐구 과정에 자극을 주고 습관화된 자신에게 변화의 동기를 갖추어야 함을 스스로 성찰하는 과정으로, 관세음은 이 태도들에서 드러난 간절함에 응했을 것이라 보인다. 의지라도 넘어설 수 없는 삶의 장벽을 마주한 상황을, 더 나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삶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기회로 제공했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 큰 순간부터는 누군가의 돌봄과 보살핌이 우선되어 성장하는 시기였을 때처럼 양육 환경이 유지될 수는 없을 것이다. 스스로 겪어보고 부딪히면서 알아차리고 깨닫는 과정이 필요한 탓이다. 그렇기에 이야기에서 관세음은 인간 성장에는 안전함과 편안함만을 추구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도전과 모험을 감행해야 하는 순간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야기의 인물들이 겪는 시련과 고난 그리고 기대 등의 상황에서 마주하는 이 가르침에는 익숙했던 자기성장 과 탐구 과정에 대한 새로운 시도, 도전과 모험을 독려하는 관세음의 의도가 담겨 있으며, 그것이 본 이야기들에서 드러난 관세음의 구원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5. 깨달음과 해탈의 기원 - 《낙산의 두 성인 관음과 정취, 그리고 조신》, 《남백월의 두 성인 노힐부득과 달달박박》, 《광덕과 엄장》

어떤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면 일상생활에서의 변화로도 나타날 수 있을까? 꾸준한 자기 탐구 과정에서 스스로를 돌이켜보았을 때 어느 정도는 자기에 대한 이해가 되었다는 느낌을 얻게 되는 순간이 오기도 한다. 왜 이런 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떤 느낌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는지, 정말 자신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깨닫고 그 앞들이 마음에 와 닿는 순간처럼 말이다.¹⁸⁾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변화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된다. 이 때 변화는 남들이 쉽게 알아차릴 수도 있고, 스스로만 알 수도 있을 것이다. 어찌되었든 매번 반복되는 일상생활이지만, 이때까지와는 다른 반응과 태도를 취하는 변화된

18) 단기정신역동치료(Short-Term Dynamic Psychotherapy, STDP)에 기반을 둔 감정 공포 치료는 인간이 겉으로 드러내는 모든 인지·정서·행동을 방어(defense)로 보았을 때, 특정한 상황에서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anxiety) 등을 느끼게 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불안은 일종의 위험신호와도 같아서 불안이 느껴지는 순간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불안을 야기하는 요소를 감소 또는 소거시키기 위하여 방어를 취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때 방어는 의식적이기도 하고 무의식적이기도 하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불안인데, 불안은 특정한 상황 속에서 감지되는 어떤 느낌(feeling)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이 느낌은 원래 스스로가 꼭 이야기하고 싶었으나 그럴 수 없었던 여러 사정들로 인하여 뒤로 밀려나게 된 억압되고 억제된 어떤 것으로 나만의 바람(wish)과 욕구(want)라고 보아야 한다(McCullough et al., 2003/2015: 127-143).

자기 모습들의 발견은 공통된 점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삶은 자꾸 시험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진정 그것을 깨닫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순간을 거치는 것만 같다. 나는 정말 깨달았고 그것에서 벗어난 것일까?

《낙산의 두 성인 관음과 정취, 그리고 조신》의 원효법사와 조신, 《남백월의 두 성인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의 노힐부득과 달달박박, 《광덕과 엄장》의 광덕과 엄장은 이야기 속에서 갈등을 겪는다. 이 갈등은 직접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갈등이기도 하고, 이것이 갈등이었는데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유혹적이기도 하다. 누군가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 대상의 사랑을 갈구하는 것, 순간적인 욕망에 빠지는 것, 상대방에게 경쟁심을 느끼고 그보다 우위에 있다는 우월감을 느끼는 것 등과 같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야기 속 인물들은 일하는 여인, 하룻밤 목을 곳을 구하는 위험에 처한 아름다운 남자, 남편을 잃고 홀로 남겨진 친구의 부인 그리고 꿈속에서 만난 짝사랑했던 여인 등과의 만남으로 그런 마음들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이 상황을 만든 여성들은 관세음의 다양한 모습들이다. 실생활 속에서 여성의 모습으로 나타난 관세음과의 만남을 통하여, 주인공들은 자기수행 과정에서 일종의 시험을 거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야기 속 상황들처럼 독립된 공간에서 안전하게 해왔던 수행과는 달리, 실전은 그 어떤 보호도 없고 그 어떤 것도 통제할 수 없어 보인다. 분명 잘 이해했고 깨달았던 것이지만, 사실 독립된 수행의 공간은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또 다른 틀(frame)이었던 것이다. 그 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속세를 떠났지만, 결국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을 가지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관세음은 인물들이 바로 그러한 깨달음을 얻기를 바랐기에, 주인공들이 얻고자 했던 삶에 대한 간절함에 응했다고 보인다. 이때까지 주인공들이 노력해왔던 긴 시간의 수행과정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관세음의 응답에 담겨 있다는 것이다. 인물들의 이야기에 결말은 깨달음 또는 해탈을 얻고 기존에 머물렀던 공간을 벗어나서 또 다른 자기탐구 여정을 이어가고 있다. 삶이 그저 삶으로만 남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살아있는 삶 즉 체득된 삶이 되기를 바라고, 한 차원 넓으면서도 깊어진 새로운 자기탐구의 영역에 발을 들이는 자비와 사랑의 마음이 관세음에게 존재하기에 이야기들 속에서 관세음의 구원은 시험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 대한 자비와 사랑 그 자체라고 볼 수 있게 된다.

Ⅲ. 논 의

본 연구는 『삼국유사』의 관세음 일화에 담긴 사람들의 고통과 관세음을 통한 구원의 과정을 살펴보고, 그에 담긴 상담적 의의는 무엇인지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12편의 『삼국유사』 관세음 일화에는 그 당시 사람들이 겪은 삶의 어려움들과 해결을 위한 노력 과정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이야기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오늘날 우리가 흔히 겪고 있는 것들처럼 이야기 속 인물들은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이다. 가족의 사망, 사랑하는 자녀에게 나타난 장애, 가족의 구성과 자녀 양육, 우울과 무기력 등과 같은 심리적 문제와 신체적 질병, 삶의 실패와 도전, 그리고 성장의 방향성 등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고민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시대와 사회적 상황을 막론하고 그러한 고민들과 문제들은 인간의 삶이 지속되는 한 늘 함께 한다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고통은 특정 시대나 상황 또는 사람들만 겪는 심각한 외상만이 아니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삶의 어려움들이기도 하다. 상담과 심리치료를 받는다고 한다면 뭔가 특별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증하게 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곳에서 다루는 이야기들은 우리네 삶의 이야기들이다. 삶에서 부딪힌 곤란, 오랫동안 고민해왔지만 답을 알 수 없는 문제 등은 평소 가까운 이들과 나누어왔거나, 그런 이를 찾지 못해 혼자만의 생각에 멈추고 또는 나만의 공간에 기록해둔 일상의 이야기들인 것이다. 그러므로 삶에서, 일상 속에서 그 어려움들을 마주했을 때 나의 말을 들어줄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문제해결의 출발점에 섰다고 볼 수 있게 된다. 누구나 언제든지 자기 삶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열린 장이 상담과 심리치료의 장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가 『삼국유사』에 나타난 관세음신앙 일화이며, 그 이야기들은 상담과 심리치료가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겠다.

둘째, 『삼국유사』 속 관세음은 지금-여기의 고난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문제해결의 과정을 조력하는 존재 즉 구원의 존재로 등장하였다. 관세음의 등장을 살펴보면 굉장히 다채로운 모습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쉽게 자각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고, 불상이나 그림, 춤과 노래, 심지어 꿈이나 시공간을 초월한 형태이기도 하다. 관세음은 왜 이런 모습들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앞에 나타났을까? 그것은 각각의 사람들에게는 관세음의 구원을 이해할 수 있는 상태와 수준이 있고 관세음은 이를 알고 있는 존재임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겠다. 이는 상담과 심리치료에서는 그에 참여하는 내담자들의 인지·정서·행동 등과 같은 전반적인 발달 상태를 이해하면서도, 그들이 어떤 삶의 배경

속에서 살아왔는지에 대한 개인사적 이해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즉, 상담과 심리치료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인간 이해를 위한 통합적 관점의 중요성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사적 이해에는 부모, 가족, 또래 등의 사회적 관계와 더불어 내담자가 살고 있는 생활세계를 포함한다. 인간은 그가 사는 사회를 벗어날 수 없다는 말에는 생활세계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그 사회와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현상적으로 자각할 수 없는 시대와 사회적 가치, 이념, 신념 그리고 역사와 문명 등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상담과 심리치료에서 인간 이해의 통합적 관점에는 이 부분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고, 그것이 상담과 심리치료에서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관세음은 고통과 고난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는 존재이다. 이야기 속에서 구원의 과정은 늘 인물들의 고민이나 어려움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즉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것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이다. 물론 누군가의 고민이나 어려움의 이야기를 듣는 일이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담고 있는 고통의 핵심을 알아차리고 그 사람의 상태와 수준에 맞추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조금 다른 영역의 이야기 과정인 것 같다. 또한 누군가가 자신의 고통을 어떤 결림이나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안전한 상황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무엇이든 제한 없이 떠오르는 대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심리적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다. 흔히 말해 상담자와 내담자의 라포 형성이라는 것으로, 내담자가 저항이나 두려움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상담자에게 편히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과정이 되는 것이다. 이 조건의 결과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삶에 이야기를 듣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구원의 존재로서 『삼국유사』 속 관세음은 상담자가 어떤 모습과 태도로서 내담자를 마주하고 소통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담적 앎과 실천까지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셋째, 『삼국유사』 속 관세음의 구원에는 인간 성장을 위한 환경 구성의 아이디어를 담고 있었다. 이야기 속 관세음은 무사·무탈, 질병의 치유, 가족 구성과 자녀 양육, 수행을 지속할 수 있는 공간의 마련, 깨달음과 해탈에 대한 기원에 응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기원의 과정은 인간이 태어나 키워지고 그를 토대로 성장하는 삶의 과정과 그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우리는 그저 그가 건강하기를 바라고, 어느 정도 크고 나서는 어떻게 하면 이들을 잘 키우고 교육할지를 생각한다. 그리고 인간이 자기만의 힘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 때에는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시행착오의 과정을 지지하고 격려한다. 자기만의 삶에 영역을 갖추어 나가는 시점이 되면 그들은 그들만의 지혜와 혜안을 통해서 또 다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이처럼 삶을 산다는 것은 성장하는 삶으로, 세상에 태어난 생명의 존재에게만 주어지는 과정일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을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세상에 태어난 생명이기 때문에 천부적으로 주어질 수밖에 없는 존귀함 그 자체이며, 그렇게 본다면 그 삶 또한 그런 가치를 지닐 수밖에 없는 것이 된다. 그렇기에 삶의 과정은 인간 성장을 위한 과정 그 자체라고 볼 수 있게 된다.

이런 관점은 관세음에게 구원은 삶을 통하여 인간 성장을 위한 가능성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 성장을 위한 환경 구성의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다. 성장을 위한 환경 그 자체가 구원인 것이다. 어떤 역할을 막론하고 인간을 성장시키는 일에는 조건 없는 사랑, 따뜻한 관심과 섬세한 보살핌으로 이루어진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이 때 환경은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따르기 때문에 양육의 역할에는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와 각종 양육시설,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 등의 개념을 포함해야 한다. 오늘날 사회가 발달되고 인간의 삶이 분화되면서 양육의 기능은 전통적인 양육의 입장을 벗어나 개인에서 조직, 사회 그리고 국가로 점차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모든 요소들은 양육적 환경을 구성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해야만 하며, 양육적 환경에는 그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모든 요소들이 그 환경을 구성하는데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함께 참여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는 개인을 사회와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고, 사회와 상호작용하는 존재로서의 인간 이해에 바탕을 둔 것으로, 상담과 심리치료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논한다. 그러므로 작고 여리며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생명을 향한 사랑은 인간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만으로 끝나지 않아야 하고, 그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양육적 환경을 구성하는 것으로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관세음의 구원이자 상담과 심리치료를 향한 시사로, 관세음이 가진 인간 성장을 위한 환경 구성의 아이디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우리의 삶은 늘 고통과 함께 한다. 고통을 마주한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드러난 사실을 통하여 그것이 함축한 의미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하여 내 주변의 자원들을 활용하겠다는 의지와 실천이 맞물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동기를 형성하는 바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상담과 심리치료는 면대면의 상황에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공동의 협력 과정이지만, 이 과정에서 나누는 이야기는 결코 개인적이지만은 않다. 인간은 사회 속에 존재하고 그 사회가 전달하는 가치들을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내면화하며 성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상담과 심리치료에서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개인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사회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내담자들의 이야기가 그들의 개인적 삶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주하는 시대와 사회를 담고 있는 이야기로 함께 해석될 때, 상담과 심리치료에서 문화적 요소와 한국적 상담의 방향성은 다시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三國遺事』

『妙法蓮華經 觀世音菩薩普門品』

권기성(2012). 치유: 유교, 상담, 기독교 비교. **한국행정사학지**, 30, 241-272.

권석만(2014). **긍정 심리학 - 행복의 과학적 탐구**. 서울: 학지사.

김선현(2015). **최상의 리듬을 찾는 내 안의 새로운 변화 그림의 힘**. 경기: 에이트 포인트.

김창대, 권경인, 한영주, 손난희(2008). 상담 성과를 가져오는 한국적 상담자 요인. **상담학 연구**, 9(3), 961-986.

박수영, 최한나(2013). 상담자가 지각한 상담성과를 가져오는 상담자 요인에 대한 개념도 연구. **상담학연구**, 14(5), 2969-2986.

안경식(1995). 관음신앙이 한국 고대 교육문화에 끼친 영향. **교육사상연구**, 4, 81-100.

안경식(2019). **신라인의 교육, 그 문명사적 조망**. 서울: 학지사.

안형관, 전영숙(1999). 상담자의 태도와 화염경의 보살정신.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2(1), 1-25.

이동식(2016). **도정신치료 입문, 프로이트와 융을 넘어서**. 서울: 한강수.

이무석(2008). **정신분석에로의 초대**. 서울: 이유.

이장호, 정남운, 조성호(2018). **상담심리학의 기초**. 서울: 학지사.

이재호(2008). **삼국유사 2**. 서울: 솔.

임은미, 김인규, 강지현, 김지현(2020). 대학생의 개인상담 성과 및 성과 요인에 대한 합리적 질적 연구. **상담학연구**, 21(1), 1-22.

조수동(2001). 『삼국유사』에 나타난 불교사상에 관한 연구. **철학논총**, 24(2), 311-336.

주은선, 박영주(2015). 상담자에 관한 국내 연구의 동향 및 상담성과에 영향을 주는 한국적 상담자 요인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4(2), 453-484.

채상식(2006). 一然 연구의 현황과 과제. **동양한문학연구**, 23, 5-32.

Brennan, J. F.(1982). *History and System of Psychology*. 홍대식 역(1996). **심리학의 역사와 체계**. 서울: 양영각.

Collin, C., Benson, N., Ginsburg, J., Grand, V., Lazyan, M., Weeks, M.(2012). *The Psychology Book*. 이경희, 박유진, 이시은 역(2013). **심리의 책**. 서울: 지식갤러리.

Jung, C. G.(1984). *Archetyp und Unbewubtes*. 한국융연구원 C. 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역(2006). **융 기본 저작집 2 원형과 무의식**. 서울: 솔출판사.

- Kottler, J., A.(1999). *The Therapist's Workbook*. 백용매 역(2010). **치료자의 자기분석과 성장을 위한 워크북**. 서울: 학지사.
- McCullough, L., Kuhn, N., Andrews, S., Kaplan, A., Wolf, J., Hurley, C., L.(2003). *Treating affect phobia : a manual for short-term dynamic psychotherapy*. 유성경, 하정, 이문희, 이은진 역(2015). **감정 공포 치료 단기역동정신치료(STDP) 실습 매뉴얼**. 서울: 학지사.
- Rogers, C., R.(1961). *On Becoming a Person*. 주은선 역(2015). **칼 로저스 상담의 원리와 실제, 진정한 사람되기**. 서울: 학지사.
- Wango, G.(2017). History and Systems of Psychology: Timelines in the Development of Contemporary Psychology. *Journal of Psychology and Behavioral Science*, 5(2), 29-43.

- 원고접수: 2020년 10월 10일/ 수정완료: 2021년 5월 11일/ 게재승인: 2021년 5월 16일
- 이진현: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경성대학교 학생상담센터 객원상담원. 연구 관심분야는 깨달음, 이야기(narrative), 상담 및 심리치료, 상담사상 및 철학 등. joo3712@gmail.com

<ABSTRACT>

**The Significance of Avalokiteśvara Faith Anecdotes
for Counseling in the Samguk-Yusa**

Lee, Jin-hyun

This study considered the suffering of people in anecdotes concerning faith in the bodhisattva Avalokiteśvara found in the Samguk-Yusa as well as salvation through the bodhisattva, and examined their implications for counseling. Twelve anecdotes about Avalokiteśvara were selected from Iryeon's Samguk-Yusa for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12 Avalokiteśvara anecdotes in Samguk-Yusa contain stories about people's distress and attempts to cope with it, which could be understood in terms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Second, in Samguk-Yusa, Avalokiteśvara appears as a counselor who hears people's suffering and pain and helps solve problems. Third, the process of salvation through Avalokiteśvara in Samguk-Yusa resembles organizing an environment for personal growth, something akin to counseling and the counselor's aims. I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the problem that the client appeals to is an individual problem, but it is also a social problem with the era of interaction. When these factors are considered with personal life, cultural elements and the direction of Korean counseling can be improved again.

Key Words : Samguk-Yusa, Avalokiteśvara, counseling idea, counseling philosophy,
narrative

